

王夫之 詩論 형성배경 고찰(2)

— 知己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

趙成千*

<목 차>

1. 들어가며
2. 知己들과의 詩文 교류 및 영향
 - 2.1 熊秉
 - 2.2 文之勇·洪業嘉
3. 나오며

1. 들어가며

“왕부지 시론은 대략 다섯 가지 측면에서 형성되었다. 첫째는 家學과 師友의 계발이다. 왕부지는 어린 시절 부형에게 인생·학문·사상·시론 방면에서 계도되고, 스승인 伍定相·高世泰, 知己인 熊秉·文之勇·洪業嘉·王源曾 등과 교류를 통해 창작의 본질, 정신 등의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다. 둘째는 창작 경험이다. 왕부지는 詩·詞·文·賦·雜劇·經義 등 다양한 장르에서 수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는 이러한 창작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시론을 세우고 구체화하였다. 셋째는 전대 및 당대 시론가들의 시론을 흡수하거나 비판한 것이다. 왕부지는 曹丕·陸機·劉勰·鍾嶸·司空圖·皎然·蘇軾·嚴羽·楊慎·前後七子·公安派·竟陵派 등 수 많은 시론가들의 시론을 수용, 비판하면서 자

* 을지대학교 여가디자인학과 조교수.

신의 시론을 형성하였다. 넷째는 역대시가의 평선이다. 왕부지는 漢代에서 隋代까지 八代의 821수·唐代의 558수·明代의 1112수, 총 2491수를 품평하였다. 이것이 바로 《古詩評選》·《唐詩評選》·《明詩評選》이다.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시론 및 비평론을 체계화 하였다. 다섯째는 儒佛道의 문예 사상의 정화에 대한 흡수이다. 왕부지는 《周易》·《尙書》·《春秋》·《詩經》 및 四書 등의 유가 전통 시론을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자신의 심미 관점으로 재해석하였다. 또한 道佛을 '이단'으로 여겼지만, 그것의 합리적인 요소를 수용하여 문예 영역 등에서 적용하였다. '現量' 등이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왕부지 시론 형성배경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다섯 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家學과 師友의 계발에 대한 탐구는 그의 시론 형성의 근원을 연구하는 것이다.¹⁾ 이러한 취지에서 줄고 <王夫之 詩論의 형성배경 고찰(1)>은 부형과 스승의 훈도 속에서 형성된 왕부지 시론을 고찰한 바 있다. 본고는 이러한 탐구의 연속으로 왕부지의 지기들이 왕부지와 시문 교류 과정에서 왕부지 시론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知己들과의 시문 교류

왕부지는 그의 고향 衡州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지만 점차 활동무대가 武昌·南昌·湘鄉·桂林·肇慶 등으로 확대되었다. 武昌·南昌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왕래했던 지역이고, 湘鄉·桂林·肇慶 등은 明의 桂王을 따라 피난한 지역이다. 왕부지는 과거응시·계왕의 永曆朝廷 참여·피난·은거의 과정에서 많은 인물들과 교류하였다. 여러 인물 가운데 왕부지와 인생역정을 함께 하고 학문 및 사상을 담론하고 시론 형성과 관련하여, 《薑齋詩話·南窗

1) 줄고, <王夫之 詩論의 형성배경 고찰(1)-父兄과 스승의 영향을 중심으로> (中國語文研究會, 《中國語文論叢》 第33輯, 158쪽.

漫記》에 자주 출현하는 인물들은 高世泰·堵胤錫·熊秉·文之勇·夏汝弼·瞿式耜·方以智·嚴起恆·管嗣裘·歐陽叔敬·李國相·郭季林·唐端笏 등이다. 이 가운데 흑자는 張獻忠이 衡陽·長沙 등을 함락하고 동조를 요구하며 모진 고초와 위협을 하였지만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흑자는 明이 망하자 淸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하기도 하고, 흑자는 병사들을 규합하여 淸에 대항하며 강개하게 목숨을 바치기도 하였다. 왕부지는 이러한 지기들과 교류하며 많은 활동을 하였다. 학문의 원류를 탐론하기도 하고²⁾, 밤새도록 통음하며 인생의 곤궁과 시름을 달래기도 하고³⁾, 忠義로써 서로 면려하기도 하고⁴⁾, 산수 강호를 유람하며 감회를 노래하기도 하고⁵⁾, 피난생활을 하기도 하고⁶⁾, 擧兵하여 淸에 저항하기도 하였다.⁷⁾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시문 교류 활동 또한 활발하였다. 시문 교류를 통해 지기의 시문을 감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⁸⁾, 작품을 지어 교류하며 품평하기도 하고⁹⁾, 소장 작품을 전해 받기도

-
- 2) 왕부지는 唐端笏과 함께 駁閣巖을 유람하였다. 그는 駁閣巖에 머물면서 그와 학술 원류를 탐론하였다. <沅湘耆舊集唐端笏傳·唐躬園墓誌>("躬園嘗得白沙集·定山集·傳習錄諸書, 讀之而嗜. 迎船山先生住駁閣巖, 爲剖示原流, 因知有朱, 陸異同, 及後來心學之誤.")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의 <同唐須竹遊駁閣巖>·<同唐須竹晏坐駁閣巖>은 唐端笏과 함께 駁閣巖을 유람하였던 감회를 쓴 시이다.
 - 3) <船山全書>一五·<薑齋詩話·南窗漫記>(嶽麓書社出版社, 1992년), 881쪽. 丁亥春, 余以窮愁客上湘, 日與白修·季霞·歐陽子私(淑)·江陵李廣生(芳先)痛飲昏曉. 이하에서 <船山全書>의 출판사·출판년도 생략.
 - 4) <船山全書>一六·<傳記之部·大行府君行述>, 71쪽. 華亭章公諱曠, 江門蔡公諱道獻, 是科俱爲公考. 時國勢漸不可支, 出場後, 遂引爲知己, 互相砥礪.
 - 5) 왕부지는 順治 3년 丙戌(1646) 3월, 洪業嘉·龍孔蒸·歐陽鎮 등과 더불어 浮湘亭에 올랐다. 康熙 7년 戊申(1667) 3월, 湘鄉에 이르러 李國相과 湄水에서 뱃놀이를 하였다. 그의 <湄水月泛同芋巖>은 이때의 감회를 쓴 것이다. 康熙 12년 癸丑(1673) 7월, 唐端笏·唐端典과 鍾武古城을 유람하였다. 그의 <新秋同唐古遺須竹遊鍾武古城歸坐小軒夜話>는 唐氏형제와 鍾武古城을 유람한 감회를 묘사한 것이다.
 - 6) 왕부지는 康熙 8년 乙未(1679), 章有謨와 墟林山中에서 피란하였다. 그의 <避亂石雞村同載謀小憩>는 바로 이를 묘사한 시이다.
 - 7) 왕부지는 順治 5년 戊子(1648) 10월, 管嗣裘와 衡山에서 擧兵하였는데 싸움에 패하여 군대가 궤멸되자 그의 조카 敎公을 데리고 耒陽으로 떠났다. 興甯에 이르러 石角山의 僧閣에서 묵었다. 歐陽霖을 만나 桂陽을 거쳐 滇江으로 내려와 淸遠을 지나 肇慶으로 갔다. 그의 <永興廖鄧二君邀宿石角山僧閣是侍先君及仲兄歷齋遊處>는 石角山의 僧閣에서 행적을 묘사한 것이다.
 - 8) 왕부지는 順治 13년 丙申(1656) 겨울에 衡陽으로 돌아와 雙髻峯閣에 올라 二賢祠에 이르러 堵允錫의 시를 다시 읽었다. 이때 상황을 그의 <二賢祠重讀義興相公詩感賦詩>에 묘사

하였다.¹⁰⁾

왕부지는 또한 지기들과 시문 모임을 통해 화창활동을 하며 작품을 창작하고 창작의 각종 문제를 담론하였다. 그는 明 崇禎 11년 戊寅(1638)에 지기들과 文酒 모임을 가졌는데, 그의 詞集 《鼓棹初集》의 <水龍吟> 第三闕의 序에 당시 상황을 묘사하였다. 그는 또한 明 崇禎 12년 乙卯(1639) 10월에는 郭鳳驪·管嗣裘·文之勇 등과 '匡社'를 조직하였다.¹¹⁾ 明 崇禎 15년 壬午(1642) 7월에는 黃岡의 王源曾·熊秉 등 100 여명이 黃鶴樓에서 회동하여 시를 지어 화창하였다. 왕부지는 지기들과 당시 화창한 분위기 및 활동과정을 《南窗漫記》에서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1647년 봄 나는 곤궁과 괴로움 속에서 上湘에 머물렀는데, 낮에는 洪業嘉·龍孔蒸·歐陽淑·江陵의 李芳先과 실컷 마시다가 밤이 새는 줄도 몰랐다. 하루 저녁에는 漣水를 건너서 절에 가 묵었는데 서쪽으로 기우는 달이 아직 지지 않았고 푸른 물결은 흐르며 달빛을 반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楊億이 "거울 속의 사람은 면전의 사람 같다"로써 "물속의 달은 하늘 위의 달과 같다"에 대구한 것을 들었는데, 시어가 合掌(상하구가 완전히 동일한 의미)을 범하여 의미가 짧고 친박했다. 용공증이 "무엇이 '살짝 가의 서리가 거울 속의 서리를 만들었네'와 비슷할까?"라고 하니, 내가 대구하여 "꿈속의 몸은 고향의 몸이다"라고 하였다.¹²⁾

《南窗漫記》는 왕부지의 시문 교류 상황 및 그와 교류한 문인들의 창작 경

하였다. 그는 또한 康熙 4년 乙巳(1665), 정월 초7일에 龍簡卿이 洪業嘉의 <梅花百詠>을 보냈는데 왕부지는 그것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和梅花百詠詩序>는 이를 묘사한 것이다.

- 9) 왕부지의 <殷浴日時蕪序>에는 殷浴日이 '時蕪'를 지어 교류한 상황, 《南窗漫記》에는 洪業嘉·蒙正發의 시문에 대한 품평이 보인다.
- 10) 順治 6년 乙丑(1649) 가을에 德慶州에 이르렀다. 鄒統魯·管嗣裘와 함께 堵允錫을 배에서 만났는데 이 때 堵允錫은 왕부지에게 軍謠10수를 주었다. 이러한 상황을 《南窗漫記》에 묘사하였다.
- 11) <匡社初集呈郭季林管冶仲文小勇>은 왕부지가 郭·管·文등과 '匡社'를 조직하여 이에 대한 감회를 표현한 것이다.
- 12) 《船山全書》一五·《薑齋詩話·南窗漫記》, 881쪽. 丁亥春, 余以窮愁客上湘, 日與白修·季霞·歐陽子私(淑)·江陵李廣生(芳先)痛飲昏曉. 一夕渡漣水, 就宿僧舍, 斜月未沈, 碧波流映. 余舉楊大年以"鏡中人似面前人"對"水低月如天上月"語犯合掌, 而意味短淺. 季霞曰:"何似'鬢邊霜作鏡中霜'?"余對云"夢中身是故鄉身."

향,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왕부지는 지기들과 시문 교류, 화창 등의 활동을 통해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 76수의 <讀甘蔗生遺興詩次韻而和之>와 100수의 <和梅花百詠詩>가 모두 이러한 활동들의 결정이다. 왕부지는 지기들과 시문 교류 및 인생역정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한없이 슬퍼하고 애도하였다. 그가 康熙 30년 辛酉(1681)에 쓴 《廣哀詩》19수는 熊秉·文之勇·章曠·夏汝弼·瞿式耜 등 19명의 지기들과의 교류를 추억하며 애도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왕부지의 시문과 시론은 지기들과의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창작되고 형성되었다. 지기들 가운데 특히 熊秉·文之勇·洪業嘉 등은 왕부지 시론 형성에 영향과 계발을 주었다. 본고는 이들이 왕부지 시론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여 그의 시론이 형성된 근원과 배경을 탐구한다.

2.1 熊秉

熊秉은 字가 渭公이고 黃岡 사람으로 武昌으로 거처를 옮겨 살았다. 왕부지는 明 崇禎 12년 乙卯(1639)에 鄉試를 위해 武昌에 갔는데, 이때에 熊秉·李雲田¹³⁾과 더불어 시문을 지어 토론하였다.¹⁴⁾ 崇禎 16년 癸未(1643), 3월에 張

13) 李以默은 또한 李以篤으로 쓰이기도 한다. 字는 雲田이며 또한 老蕩子라고도 불리었다. 湖廣漢陽 사람이다. 明 崇禎 貢生이다. 박학다식하며 독서하기를 좋아했다. 科擧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였다. 시문으로 이름을 날렸다. 저서로 <菜根堂集>·<醉白堂集>이 있다. 徐電發<續本事詩>("雲田才高淪落, 龔芝麓爲賦老蕩子行")에는 李以默에 대한 묘사가 있다. 吳梅村의 <吳梅村集>에는 또한 李以默에 대한 시<蕩子失意行贈李雲田>가 있다.

14) 왕부지는 당시 이러한 상황을 《夕堂永日緒論·外編》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기억하건데, 옛날에 黃岡의 熊秉·李雲田과 더불어 일종의 문장을 지었는데 유연하고 변동성 있는 말을 일시적으로 쓰는 것을 범하지 않았고 더 이상 억지로 고인의 자구로 빠져들지 않고, 정수를 취하고 진액을 정제하여 고요한 빛으로 微言을 표현하였다. 업으로 삼은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문장이 끊어지게 되었고 살고 죽는 것이 힘들게 되었으니 생각이 이에 미치니 그만 목이 메고 막힌다(因憶昔與黃岡熊渭公, 李雲田以默, 作一種文字, 不犯一時下圓熟語, 復不生入古人字句, 取精煉液, 以靜光達微言. 所業未竟, 而天傾文喪, 死死契闊, 念及祇爲悲哽.)"

獻忠이 黃州를 함락시키고 5월에 武昌을 함락시켰다. 장헌충이 추격하여 오자 연못에 뛰어들어 죽었다.¹⁵⁾ 熊秉은 일찍이 왕부지에게 ‘命意’에 대한 문제, ‘三蘇’에 대한 평가, 창작방향의 변화에 있어서 많은 계시와 영향을 주었다. 왕부지는 일찍이 熊秉 등과 黃鶴樓에서 회동하여 시를 지어 화창하였다. 그는 이때의 분위기를 시문으로 묘사하였는데, 그의 <黃鶴盟須大集用熊涓公韻>과 《南窗漫記》의 내용이 그것이다. 그가 《南窗漫記》에 묘사한 당시의 화창 상황을 살펴보자.

崇禎15年(1642) 초가을에 黃岡의 王源會·熊秉이 黃鶴樓에서 사람들과 회동하였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백여 명으로 각기 운을 가지고 시를 지었다. 熊秉이 四言을 지었는데 그 끝 장에 “시험 삼아 나무 끝 바라보니, 좋은 꽃 나무끼네. 청명의 좋은 기운 받아, 기둥 앞에서 왕성하게 피었네.” 라고 하였다. 熊秉은 禪制로 인하여 秋試에 참여하지 못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축하를 보내기 위해 지은 것이니 주지(意)을 표현함이 평범과 천박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청명함이 어찌 科擧의 명성이 그것에 필적될 수 있으리오? ………(熊秉이)《緯恤》 한 질을 지었는데 모두 四言으로 “황제께서 원로에게 명하셨는데, 황제 수레 타고 황제 깃발로 장식하셨네. 황제 수레 타고 황제 깃발로 장식하고서, 그에게 명하였지만 지키지 못하였네.”라고 이른 말이 있으니, 楊嗣昌이 荊州와 襄陽에서 일을 망치고 죽은 것을 회고하여 꾸짖는 것이다.¹⁶⁾

위 예문에 의하면, 熊秉은 四言詩를 지었는데 왕부지는 熊秉의 四言의 末章을 폄평하여 “주지(意)를 표현함이 평범과 천박으로 떨어지지 않았다(命意不落凡

15) 熊秉에 대해서 또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熊秉은 邵子の 《皇極書》를 좋아하고 자못 미래에 대해서 말하였다. 16년 元旦에 그가 지은 《性理格言》·《圖書懸象》·《大易象》등의 책을 그의 季弟에게 주며 “잘 간직하라”고 하였다. 城이 함락되기 하루 전에 친구 馮雲路에게 글을 지어 주며 “내일 나를 어느 나무 아래에서 찾으라. 고 하였다. 기일이 되어 나무 아래로 갔을 때 장헌충이 추격하여 오자 연못(荷池)으로 뛰어들어 죽었다. (王之春撰·汪茂和點校 《王夫之年譜》·中華書局, 11쪽)

16) 《船山全書》一五·《薑齋詩話·南窗漫記》, 877쪽. 壬午初秋, 黃岡王又沂源會、熊涓公秉會同人於黃鶴樓, 與者百人, 各拈韻賦詩. 涓公作四言, 末章云: “試望木末, 好花翩翩. 清明佳氣, 跋發楹前.” 涓公以禪制不與秋試, 爲同人祝也, 命意不落凡近. 清明者, 豈科名足以當之? ………著<緯恤>一帙, 皆四言也, 有云: “帝命元老, 黃屋左纛. 黃屋左纛, 命之莫保.” 以追刺武陵相荊襄偵事而死也.

近.”라고 하였다. 이것은 시가창작에서 ‘命意’에 관한 명제로, 그는 시인이 작품에 표현하려는 ‘주지(意)’가 ‘평범과 천박’에서 표현되어서는 안되고 ‘高遠’의 경지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왕부지 시론에서 ‘命意’에 관한 명제는 중요한 시가미학 논제이다. 그는 ‘주지(意)’를 표현함에 ‘高遠’¹⁷⁾ · ‘寬大’¹⁸⁾ · ‘廣遠’¹⁹⁾ · ‘取勢’²⁰⁾를 강조하였다. 왕부지의 《薑齋詩話》·《古詩評選》·《唐詩評選》·《明詩評選》 등에서 제기한 이러한 ‘命意’에 관한 문제는 일찍이 熊秉 과의 시문 교류 및 화창 활동에서도 계발된 중요 문제이다.

熊秉은 특히 왕부지의 ‘三蘇’에 대한 평가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熊秉은 일찍이 왕부지에게 시문창작에서 ‘三蘇’를 경계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 왕부지는 《南窗漫記》에서 熊秉이 자신을 위해서 시의 서문을 지었는데 蘇軾과 秦觀의 관계를 경계로 삼으라고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熊秉은 독실한 뜻과 바른 학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與李文孫論致知書>라는 글을 지어 王守仁의 邪僻을 깨뜨렸다. 나를 위해 시에 서문을 썼는데, 蘇軾·秦觀을 경계하도록 하였다.²¹⁾

왕부지는 또한 熊秉의 애도시 <熊文學秉>에서 熊秉이 자신에게 蘇軾과 秦觀의 관계를 배우지 말라고 한 경계를 그의 평생의 ‘津筏’로 받들어 왔음을 말하였다.

높은 黃鶴樓에 가을되었네, 술 부으며 강속의 달 부르네. 당시에 비분강개한 사람들은, 세월 덧없이 흘러 백골 되어 문혔구나. …… 秦觀·蘇軾이 함께 매몰된 것

17) 《薑齋詩話》卷下·《夕堂永日緒論·內篇》·《清詩話》，21쪽. 至如太白鳥栖曲諸篇，則又寓意高遠，尤爲雅奏。(李白<烏棲曲>評語)

18) 《船山全書》一四·《唐詩評選》卷四，1090쪽. 寬於用意，則尺幅萬里矣。(杜甫<九日藍田宴崔氏莊>評語)

19) 《船山全書》一四·《明詩評選》卷八，1635쪽. 寄意亦自廣遠<張妙淨<蘇臺竹枝詞>評語)

20) 《薑齋詩話》卷下·《清詩話》，8쪽. 以意爲主，勢次之。勢者，意中之神理也。

21) 《船山全書》一五·《薑齋詩話·南窗漫記》，877쪽. 涓公篤志正學，有與李文孫論致知書，破遙江之僻。爲余序詩，以眉山·淮海爲戒。‘眉山’은 蘇軾，‘淮海’는 秦觀을 말함。

을 배우지 말아야 하네. 40년 세월을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를 津筏로 받들었네. 말하려 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에 당시에 唐端笏에게 말했네. 蘇軾은 荒淫하고 蘇轍은 사투를 품어 마치 저 괴이한 별이 요상한 빛을 내는 것과 같은데, 浮華한 수식은 초학자들을 기쁘게 하니 그들에게 달려가다 넘어진다네. 내 친구의 한 마디 말이 남아 있으니 그들을 쫓다가는 힘이 고갈된다네.²²⁾

왕부지는 蘇軾과 蘇轍에 대해 “蘇軾은 荒淫하고 蘇轍은 사투를 품어 마치 저 괴이한 별이 요상한 빛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평가하였는데 그의 ‘三蘇’에 대한 평가에는 熊秉의 교훈과 경계가 있었다. 《搔首問》에서는 왕부지의 ‘三蘇’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熊秉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이 더욱 상세하다.

근자에 崇德 사람 呂留良이 있는데, 자는 用晦로서 陸九淵·王陽明의 학문을 극도로 비난하여 朱子の 가르침을 지키고자 하니 옳은 것이다. 그렇지만 三蘇를 끊임없이 칭찬하였는데, 蘇氏가 어찌 감히 육구연·왕양명의 어깨와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이겠는가!…… 蘇洵은 ‘說客의 선봉’이고 蘇軾은 ‘荒淫의 우두머리’이고 蘇轍은 ‘사악의 장부’이니 문장 사이에서 그러한 면모가 완전히 드러난다. 우연하게 蘇軾의 《仇池筆記》등과 같은 서적을 읽어보니 단지 촌 무당이 날조하는 거짓 말과 같을 뿐이다. 세상 떠난 친구 熊秉은 나를 위해 서문을 지어 “秦觀은 文思가 민첩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蘇軾과 교류하지 않고 그로부터 천거를 받지 않았다면 下流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언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니, 불초한 사람은 중신토록 덕이 높고 명망이 높은 사람의 말로 받들어 왔다. 주자는 만약 “蘇軾이 크게 쓰이고 秦觀의 무리들을 이끌어 관직에 있게 했다면 해악이 더욱 말할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 말도 극진하지 못하다. 秦觀 무리는 蘇軾에 의하여 狂醉로 이끌려 들어갔으니 秦觀의 무리는 끝내 씻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熊秉이 서문을 지을 시기는 나이가 비록 막 약관이었지만 학식은 이와 같았다.²³⁾

22) 《王船山詩文集》下·《薑蕙詩分體稿》卷一·《廣哀詩·熊文學叢》，308쪽. 黃鶴高樓秋，醇酒邀江月。當時慷慨人，荏苒埋白骨。……勿用學秦觀，眉山同汨沒。生死四十秋，奉此爲津筏。欲言人不知，時語唐端笏。軾淫輒懷惡，如彼妖星孛。浮采悅初機，馳驟赴顛蹶。我友片言存，步趨力苦竭。

23) 《船山全書》一二·《搔首問》，646쪽. 近有崇德人呂留良，字用晦，極詆陸王之學，以衛朱子之教，是已。乃其稱道三蘇不絕，蘇氏豈敢望陸王之肩背者！……明允說客之雄，子瞻荒淫之長，子由傾險之夫，於文字間面目盡露。偶閱仇池筆記等書，直是村巫鬼語耳。……亡友熊渭公秉，爲余作序，言“以秦少游對客揮筆之才，使不交眉山，薦由眉山，則自不居下流”遺言在耳，不

왕부지는 呂留良이 ‘三蘇를 칭찬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다. 그는 蘇洵을 ‘說客의 선봉’, 蘇軾을 ‘荒淫의 우두머리’, 그리고 蘇轍을 ‘사악의 장부’라고 폄하하였다. 그리고 蘇軾의 筆記 《仇池筆記》²⁴⁾ 등의 작품을 단지 ‘촌 무당이 날조하는 거짓 말’일 뿐이라 하였다. 왕부지의 ‘三蘇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평가의 근거에는 물론 熊秉의 교훈과 경계가 자리하고 있다. 熊秉이 왕부지의 시집 서문에 남겨준 경계는 “秦觀은 文思가 민첩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蘇軾과 교류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천거를 받지 않았다면 下流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南窗漫記》의 “나를 위해 시에 서문을 썼는데, 蘇軾·秦觀을 경계하도록 하였다”에 대한 구체 설명이다. 熊秉은 왕부지에게 秦觀이 뛰어난 재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蘇軾과 교류하였고 그로부터 천거를 받아서 결국은 下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경계와 교훈을 주었다. 왕부지는 熊秉이 자신에게의 경계를 평생의 지표로 삼았다고 하였다. 熊秉의 ‘三蘇에 대한 이러한 영향으로 왕부지는 朱熹보다 ‘三蘇에 대해 더욱 반감을 가지고 朱熹의 평가를 오히려 “극진하지 못하다”라고 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蘇軾은 秦觀을 ‘狂醉’로 이끌어 들인 사람이라 하였다. 戴鴻森은 《薑齋詩話箋注》에서 왕부지가 이처럼 蘇軾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왕부지는 蘇軾을 깊이 미워하였는데, 주로 학술 방향과 정치사상이 다르고 동시에 명말의 방탕하고 퇴폐적인 문사들이 기풍에 대하여 격분함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또한 같은 시기 熊秉과 같은 친구의 영향을 자못 받기도 하였다.²⁵⁾

때문에 왕부지의 《薑齋詩話》·《古詩評選》·《唐詩評選》·《明詩評選》 등의 저작에서 ‘三蘇의 평가, 특히 蘇軾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이

肖終身奉爲著蔡。朱子謂“使子瞻大用，引秦觀輩使在位，敗壞更不可言。”說亦未盡。少遊輩爲子瞻引入狂醉，非少遊輩之終不可洗濯也。涓公作序時，年雖甫弱冠，而識量如是。

24) 《仇池筆記》는 2권으로 된 宋代의 筆記이다. 蘇軾의 저작으로 알려졌으나 후인이 소식의 雜帖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내용은 《志林》과 서로 비슷하여 대체로 遺聞軼事·山川風物·佛道修養·陰陽術數·靈驗藥房 등에 관한 것이다.

25) 戴鴻森 《薑齋詩話箋注》(木鐸出版社·民國71年), 164쪽. 船山深惡蘇軾, 主要雖爲學術道路和政治思想的歧異, 同時有激於明末放蕩頹廢的士風, 然亦頗受同時朋輩如熊秉의 影響.

다.26)

熊秉은 왕부지의 창작방향의 전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왕부지는 일찍이 《憶得·述病枕憶得》에서 자신의 창작전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술회한 적이 있다.

崇禎, 甲戌 내 나이가 16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동리에서 四聲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韻을 물어서 드디어 입이 떨어지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 그 뒤에 내가 숙부 牧石先生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서 比耦·結構를 알았고 이에 따라서 李夢陽·何景明에게 시학의 길을 묻고자 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서 중도에 바꾸어서 竟陵의 時響을 따랐다. 乙酉에 이르러 고금을 떠나서 자신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 옛날 癸未 봄에 《漣濤園》초각본이 있었는데, 세상 떠난 熊秉이 서문을 지었다. 난리 뒤에 그 각판을 분실하였으니, 이에 의뢰하여 웃음과 후회를 스스로 면하고자 한다.27)

왕부지는早年에 동리에서 聲韻과 같은 시의 기초를 학습하고 그의 숙부 牧石公으로부터 시의 기본형식을 학습하였다. 그리고 牧石公이 李·何의 근체시의 풍격을 학습하였고 牧石先生에게서 시의 기본형식을 학습한 왕부지가 또한 李·何를 본받고자 한 것은 시가 학습계통상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왕부지가 시가학습과정에서 牧石公의 영향으로 李·何를 본받고자 하였지만 중도에 바꾸어 ‘竟陵’을 따랐다. 그러나 牧石公이 ‘竟陵’을 매우 싫어하여 심지어 눈살을

26) 《薑齋詩話》·《清詩話》, 13쪽. 作詩亦須識字. 如思·應·教·令·吹·燒之類, 有平仄二聲, 音別則義亦異. 若粘與押韻, 於此竊突, 則荒謬止堪嗤笑. …… 蘇子瞻不知軒轅彌明詩序“長頸高結”, “結”字作“潔”音, 釋子之所恥爲, 而孟浪若此!

《薑齋詩話》·《清詩話》, 16-17쪽. 元美末年以蘇子瞻自任, 時人亦譽爲『長公再來』. 子瞻詩文雖多減裂, 而以元美擬之, 則辱子瞻太甚. 子瞻, 野狐禪也, 元美則吹螺搖鈴, 演梁皇懺一應付僧耳.

《船山全書》一四·《古詩評選》卷二, 612쪽. 如事無繁稱, 舉止自然安雅. 齊梁以下, 四言將絕. 此與庚信皇夏, 皆惡辭也, 以體制密整, 故未編入樂府, 而綴之此. 自是以降, 唐宋人以饒峭孤欹者爲四言, 而四言永亡矣, 如蕭穎士江有楓, 蘇子瞻和陶之類是也. 曠百代而嗣音, 莊誰待焉?(牛弘<誠夏>評語)

《船山全書》一四·《明詩評選》卷四, 1305쪽. 結句非故爲深, 是他開心衝口說出. 如此方得和陶飲酒. 蘇子瞻酸溜殺人, 何況餘子!(祝允明<和陶飲酒>評語)

27) 《王船山詩文集》下·《憶得·述病枕憶得》, 508쪽. 崇禎甲戌, 余年十六, 始從里中知四聲者問韻, 遂學人口動. ……已而受教於叔父牧石先生, 知比耦結構, 因擬問津北地信陽, 未就而中改從竟陵時響. 至乙酉乃念去古今而傳己意. ……昔在癸未春, 有漣濤園初刻, 亡友熊涓公爲序之. 亂後失其鈔木, 賴以自免笑悔.

찌푸리면서 왕부지에게 무엇 때문에 ‘아녀의 선웃음(兒女嘯呪)’와 같은 시를 짓느냐고까지 하였다. 왕부지의 인성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牧石公의 ‘竟陵’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왕부지가 ‘竟陵’을 따랐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시대적 영향의 결과였고 또한 그의 대외적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왕부지가 확고한 자아를 형성하고 또한 그의 시론을 형성하였을 때 ‘竟陵’을 오히려 가혹하게 비판하고 부정하였다.²⁸⁾ 왕부지가 ‘竟陵’을 따랐다가 또한 ‘竟陵’을 벗어나 이처럼 ‘竟陵’을 가혹하게 부정하고 비판하기까지 ‘竟陵’에 대한 시각의 전변에는 많은 요인이 있다. 그중에서도 牧石公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牧石公 이외에 왕부지의 ‘竟陵’에 대한 시각의 전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熊秉이다. 왕부지는 崇禎 16년 癸未(1643)에 시집 《澗濤園》²⁹⁾을 초각하였다. 이 시기는 전후로 왕부지의 창작노선은 여전히 景龍의 세례에 있었다. 왕부지가 景龍에 세례에 있을 당시 熊秉은 왕부지의 시집 《澗濤園》에 서문을 썼다. 그러나 張獻忠의 침략으로 그 각관은 분실되었다. 때문에 熊秉이 왕부지의 시집 《澗濤園》에 써 주었던 서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南窗漫記》·《廣哀詩·熊文學》·《搔首問》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熊秉이 왕부지의 시집 《澗濤園》에 써준 서문은 바로 “蘇軾·秦觀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이다. 이것의 표면적인 의미는 秦觀이 뛰어난 재주를 가졌음에도 蘇軾과 교유하고 그로부터 추천을 받아 결국은 下流에 머물렀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熊秉이 왕부지에게 준 경계는 단순히 秦觀과 蘇軾과의 관계에서 蘇軾을 비판하기 위한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의 함의는 당시 ‘竟陵’의 세례에 있었던 왕부지에게 주는 경계이다. 熊秉은 이러한 秦觀과 蘇軾의 관계를 비유하여

28) 《船山全書》一四·《唐詩評選》卷四, 1111쪽. 竟陵一派強酸假醋之詩, 爲學究命根矣. (王建<贈索暹將軍>評語)

《船山全書》一四·《明詩評選》卷四, 1327쪽. 乃至竟陵尖陋俚劣之言, 亦欲上參陶, 謝. (王穉登<古意>評語)

29) 澗濤園: 건도원은 明 崇禎 14년 癸未(1641)에 지은 정원이다. 왕부지는 건도원을 짓고 여기에 竹·花卉 등을 심었다. 그의 시집 《憶得》의 <澗濤園初構種竹環小軒雜植花卉盛夏遂已成陰>은 건도원에 심은 竹·花卉 등이 자라서 여름에 그늘을 이룬 것을 표현한 것이다.

왕부지로 하여금 ‘竟陵’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왕부지가 만약 ‘竟陵’을 따른다면 결국 秦觀처럼 뛰어난 학문을 가졌음에도 下流로 전락한다는 경계이다. 왕부지가 당시의 시대조류와 대외활동의 결과로써 ‘竟陵’의 세례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왕부지의 시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시적 수용이었다. 왕부지가 자신의 시론을 형성하였을 때 오히려 ‘竟陵’을 가혹하게 비판하고 부정하였다. 왕부지의 시론의 형성과 창작방향의 전변에는 熊秉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왕부지가 《廣哀詩·熊文學》에서 “40년 세월을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를 津筏로 받들었네.”라고 하여 熊秉의 교훈과 경계를 평생의 ‘津筏’로 삼았다고 한 것은 이를 나타낸다. 왕부지와 熊秉의 이러한 관계에서 熊秉이 세상을 떠났을 때 왕부지의 애도의 감정은 매우 애절하였다. 왕부지가 평생 동안 교유했던 지기들을 애도하여 지은 19수의 《廣哀詩》 중에서도 熊秉을 애도하여 지은 <熊文學>을 19수 가운데 서두에 놓았다는 점도 그에 대한 애도의 감정을 짐작하게 한다.

2.2 文之勇·洪業嘉

文之勇은 字가 小勇이고 衡陽 사람이다. 일찍이 왕부지 등과 ‘匡社’를 조직하였다. 順治 4년 丁亥(1647)에 藍山에서 亂兵을 만나 세상을 떠났다. 그는 왕부지의 초년 동리친구이며, 왕부지와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였다. 이런 까닭에 왕부지의 그에 대한 추모의 정은 매우 간절하였다. 왕부지는 《廣哀詩·文明經之勇》에서 文之勇을 ‘湘水의 영혼(湘靈)’에 비유하고 “九疑山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울었다.”고 애도함으로써 그의 죽음에 매우 애달픈 감정을 드러내었다. 이 시의 결미에서 또한 文之勇을 ‘商絃’에, 자신을 ‘朱絃’에 비유하여 ‘商絃’가 이미 중도에서 끊어져 ‘朱絃’은 더 이상 ‘商絃’의 가락에 맞추어 가락을 울릴 수 없다고 하였다.³⁰⁾ ‘伯牙絕絃’의 고사를 연상시키는 이 시구는 왕부지의 지기의

30) 《王船山詩文集》下·《薑齋詩分體稿》卷一·《廣哀詩·文明經之勇》, 309쪽. 九疑哭湘

죽음에 대한 애끓는 심정을 보여 준다. 왕부지가 또한 19수의 《廣哀詩》에서 文之勇을 애도한 시 <文明經之勇>을 熊震 다음에 차서한 점, 32조목의 《南窗漫記》에서 文之勇에 관한 내용을 제4조목에 위치한 점 등은 또한 文之勇에 대한 그의 애정을 짐작케 한다. 왕부지가 文之勇으로부터 인격적 감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론 형성에 적지 않은 계시와 영향을 받았음을 《南窗漫記》의 다음에서 짐작할 수 있다.

세상을 떠난 친구 文之勇의 시구에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를 좇아서 글을 물을 까? 바람 거세어 문조차 열 수 없네.”라는 말이 있다. 江西宗派體 가운데 자연히 뛰어난 경지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 황량하고 곤궁한 모습, 고고하고 세속을 초월한 정취를 또한 대략적으로 볼 수 있다. 文之勇이 거처하였던 바는 교외의 한 허물어진 집을 빌어서 살았고 매일 아침쌀을 사서야 밥을 지었으나 하루 종일 책에 전념하였고 노래하고 휘파람 불며 깨끗하게 지내면서 유유자적하였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슬프디 슬프게 빈곤을 걱정하고 장성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가 쇠해진 자는 風俗에서 이루어져 더 이상 이러한 풍미를 알지 못했다.³¹⁾

왕부지는 文之勇이 시구를 통해서 문지용의 황량하고 곤궁한 생활 속에서 고고하고 세속을 초월한 정취를 가지고 있고 하루 종일 독서하고 노래하고 휘파람 불며 깨끗하게 지내며 유유자적하게 생활하는 인격을 찬탄하였다. 그의 이러한 시문 감상은 바로 孟子的 “그 시를 읊조리고 그 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을 모를 수 있을까(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可乎)?”에 연원을 두고 있다. 맹자·왕부지가 시문 감상에서 제기하려는 명제는 모두 작품의 풍격과 작자의性情과의 관계 문제로서 모든 예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범주이다. 왕부지는 작품의 풍격과 시인의 성정은 불가분의 밀접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풍격으로 시인의 성정을 알 수 있고 시인의 성정 또한 작품의 풍격에 영

靈, 歸魂識鵲妖, 商絲旣中絕, 朱絃誰共調.

31) 《船山全書》 一五·《薑齋詩話·南窗漫記》, 876쪽. 亡友文小勇之勇有句云: “人誰從問字, 風不可開門。”於江西宗派體中, 自居勝地, 而其荒涼寒苦之狀, 簡傲絕俗之致, 亦概可見矣. 小勇所居, 僻郊外一破屋, 每旦待糶而炊, 而長日一卷, 嘯傲自如. 斯人亡後, 戚戚憂貧, 未壯而氣衰者, 成乎風俗, 不復知此風味矣.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古詩評選》卷五에서 “감정이 드러난 시에서 충분히 인품의 정도를 관찰할 수 있다”³²⁾고 한 것 이를 말한다. 왕부지는 문지용이 곤궁함에서도 고고와 탈속의 정취를 잃지 않고, 궁핍함속에서도 유유자적한 생활을 한 것으로써 역대 시가품평에서 개인의 사욕과 기한을 올바르게 풍조를 비판하는 토대로 삼았다. 그는 개인의 사욕과 기한을 표현하는 것은 ‘本心’을 잃어버린 것이라 하였다.

처자의 기한을 불쌍히 여기고 생활(居食)이 풍족하지 못하고 누추한 것을 슬피하고 교유에서 사람에게 따라 환대받고 냉대 받는 것을 원망하여 하늘에 호소하고 귀신을 책망하기를 마치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곧이곧대로 말하여 거리낌이 없이 하는 것과 같으니 그 본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면 누가 차마 이런 짓을 하겠는가!³³⁾

왕부지는 杜甫·韓愈·孟郊·曹鄴 등의 시문에는 私欲의 추구가 진하게 스며들어 시가 천하에서 없어지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재화가 넉넉하지 못하고 생활이 풍족하지 못하고 처첩 받들이 순조롭지 못하고 다니면서 빌었던 요구가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을 길게 말하고 탄식하며 그것을 그럴싸하게 꾸며 문장으로 하고 금전과 비단(金帛)에 대한 갈망과 취하고 배부름(醉飽)에 대한 갈구의 정을 스스로 그려내니 부끄럽게도 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자는 오직 杜甫일 뿐이다. 오호라! 杜甫는 뜻을 말하는데 거짓으로 하면서 남을 현혹하였으니 장차 떠돌면서 구걸하는 시를 짓는 나무가 되었으나 그 시에 “저오기 稷과 契에 비교해본다.” 라고 하였다. 그 私欲을 채우는 데 급급하여서는 슬픔으로 울었으니 그 시에 “먹다 남은 술과 차가워진 요리를 구걸하니 이르는 곳마다 가슴 속에 슬픔과 고통이 저며 드네. 라고 하였다. …… 杜甫는 그 本心을 잃었고 또한 安足이 없었을 뿐이다. 韓愈가 그것을 계승하고 孟郊가 그것을 본받았으며 曹鄴이 그것을 전수하였으니 詩가 드디어 천하에서 없어지게 되었다.”³⁴⁾

32) 《船山全書》一四·《古詩評選》卷五, 806쪽. 言情詩極足規人品度。(何遜<贈諸遊舊>評語)

33) 《船山全書》三, 《詩廣傳》卷一, <北風·論北門>, 326쪽. 恤妻子之飢寒, 悲居食之儉陋, 憤交遊之炎涼, 呼天責鬼, 如銜父母之恤, 昌言而無忌, 非殫失其本心者, 孰忍爲此哉!

왕부지는 시문에 私欲의 감정이 표현되는 것은 ‘天理’가 발현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³⁵⁾ 그는 시가작품은 마땅히 고고하고 고아한 정취, 고상하고 훌륭한 인격이 표현되어 천리가 발현하고 성정이 교화되는 작용을 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왕부지의 이와 같은 시론 형성에는 일찍이 文之勇의 관점으로 부터 계발되고 영향 받은 것이다.

洪業嘉는 字가 伯修이고 上湘 사람으로 崇禎 시기의 諸生이다. 지기들과 교류하며 음영하기를 즐겼다. 龍孔蒸·歐陽淑과 더불어 上湘의 세 시인으로 일컬어졌다. 永曆 원년 봄에 장헌충의 반란군에게 죽음을 당했다. 왕부지는 《南窗漫記》에서 洪業嘉의 불우·창작 취향·그와의 화창 활동을 언급하였다. 왕부지는 洪業嘉의 시문 교류를 통해 시인의 정취, 감정 표현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湖南 湘縣의 洪業嘉는 같은 고을의 龍孔蒸과 시를 읊조리며 서로 존송하였는데, 평범과 천박을 벗어나 때로는 白鶴이 창공에서 우는 정취를 얻었다. 丙戌(1646)에 湖廣의 鄉試를 衡陽에서 개최하였는데 흥업가가 낙방하고 南嶽을 지나 돌아온 뒤에 여섯 장의 시를 지었다. 뜻을 기탁함이 넓고 심원하니 唐 나라 사람이 ‘榜 앞에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도리어 자신이 부끄러웠네.’라고 한 것을 보면, 마치 자라의 기침처럼 말이 분명하지 않고 의미가 모호할 뿐이다. “峒山の 구름 까닭 없이 항상 비를 날리네, 혜초 풀 휘장 속에 있는 그대 무슨 마음으로 홀로 난초 좋아할까”라고 이른 것은 이미 굽어보고 우러러 보기에 뛰어났다. “조각한 활 들고 흰 말을 탄 三軍 병사들, 푸른 팔배나무 청록의 죽두리 풀 무성한데 항구에 스치는 한 줄기 바람.”이라 한 것에 이르러서는 세상을 근심하는 마음이 杜甫에 비교하여 더욱 함축적으로 표현되었다. 또 “고금이 생긴 이래로 모두 나그네 되었으니, 강산에서 서로 보았을 뿐 서로 알지 못하네. 曹·劉는 으르렁 거리며 천하를 삼분하였을 뿐이지만, 孫·阮은 자유자재로 시대를 읊조렸다네.” 이는 어찌 경학자들 마음속에 이러한 품성을 가질 수 있는 바의 것이겠는가? 얼마 안

34) 상동, 若夫貨財之不給, 居食之不腆, 妻妾之奉不諧, 游乞之求未厭, 長言之, 嗟嘆之, 緣飾之爲文章, 自繪其渴於金帛, 設於醉飽之情, 顧然而不知有譏非者, 唯杜甫耳. 嗚呼! 甫之誕於言志也, 將以爲游乞之津也, 則其詩曰“竊比稷與契”; 迨其欲之迫而哀以鳴也, 則其詩曰“殘杯與冷炙, 到處潛悲辛”. …… 甫失其心, 亦無足耳. 韓愈承之, 孟郊師之, 曹鄴傳之, 而詩遂永亡於天下. 위 문장의 竊比稷與契는 杜甫의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의 시구이고, “殘杯與冷炙, 到處潛悲辛”은 그의 <奉贈韋左丞二十二韻>의 시구이다.

35) 《船山全書》 六·《讀四書大全說卷六·孟子告子上篇》, 1082쪽. 有私意私欲爲之阻隔而天理不現.

되어 반란병 의하여 해침을 당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다시 이러한 사람과 더불어 大雅에 노닐 수 있으리오!³⁶⁾

왕부지는 홍업가의 작품을 통해 시는 “평범과 천박을 벗어나 白鶴이 창공에서 우는 정취”를 표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그는 시문에서 淫情·假情·私欲·방탕과 천속·개인의 기한을 울부짖고 물욕을 추구하는 감정이 표현되는 것을 반대하고, 심원·고아·온유·정직·진지·진실의 감정이 표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왕부지의 이러한 관점은 홍업가와와의 시문 교류 및 시의 정취에 대한 담론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왕부지는 시의 표현에 있어서 단도직입적 표현을 반대하고 완곡·함축 등의 수법을 통해 온유둔후의 예술성취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실례를 들어, 홍업가는 과거에 낙방한 감정을 표현함에 절제·함축으로 뜻을 넓고 심원하게 표현하였지만, 李廓의 <落第> “榜 앞에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도리어 자신이 부끄러웠네”는 감정을 단도직입적으로 노출시켰다고 하였다. 왕부지는 또한 맹교가 과거의 득실에 따라 감정을 표현한 것을 비판하여 《詩譯》에서 “하물며 孟郊처럼 갑자기 웃다가 마음이 미혹해지고 갑자기 울다가 혼백이 나간 사람에게 있어서랴!”³⁷⁾라고 하였다. 戴鴻森은 王夫之가 孟郊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판한 것은 대개 그가 《讀四書大全說》卷二에서 말한 바의 다음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36) 《船山全書》一五·《薑齋詩話·南窗漫記》，880쪽. 上湘洪伯修業嘉與同邑龍季霞孔蒸以吟咏相尚，擺脫凡近，往往得霜鶴唳空之致。丙戌，開楚闈於衡陽，伯修落第，歸徑嶽後，賦詩六章，寄意弘遠，視唐人“榜前潛下淚，衆里卻嫌身”，如鑿欸耳。如云“嗣雲無故常飛雨，蕙帳何心獨嗜蘭”，既俯仰卓然矣；至云“雕弓白馬三軍客，碧杜青蘅一港風”，憂世之心，視杜陵爲尤蘊藉。又云：“自有古今皆作客，河山相看不相知。曹劉咄咄三分耳，孫阮僂僂一嘯時。”此豈經生心腎中所能有此種性者？未幾爲亂兵所害，何從更得斯人，與游大雅哉！

“自有古今皆作客，河山相看不相知。曹劉咄咄三分耳，孫阮僂僂一嘯時。”의 해석에서 曹劉는 曹操와 劉備인 듯 하고, 孫阮은 孫權과 阮籍인 듯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이에 曹劉는 曹·劉로, 孫阮은 孫·阮으로 해석하였다. 이 시구의 전체를 찾기 어렵다. 이에 제목 및 이 시구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다.

37) 《清詩話》上冊·《薑齋詩話》卷上，4쪽. 況孟郊之乍笑而心迷，乍啼而魂喪者乎？

《讀四書大全說》卷二에서 “孟郊의 문장으로 進士에 오르는 것이 어찌 될 수 없으리요? 그러나 되지 못했을 때는 ‘榜 앞에서 눈물 흘리며, 못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부끄러웠네.’라고 하여 이미 과분하게 바라서는 될 수 없는 일이라 여겼다가 이미 되었을 때는 ‘봄 바람 살랑대는데 뜻을 얻어 말을 질주하여 몰아, 하루에 長安의 꽃 구경 두루하네.’는 그 기뻐함을 그지없게 하였으니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듯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곳의 이른바 “금새 환호하다가 마음이 미혹해지고, 금새 울부짖다가 혼백을 잃었다”라고 한 것은 또한 바로 이 뜻이다.³⁸⁾

그리고 戴鴻森은 또한 그것은 왕부지가 “자기 한 사람의 과거의 득실에 마음을 얽매고 정회가 편협한 것을 기롱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⁹⁾ 왕부지의 심미 예술 관점에서 보면 孟郊의 이와 같은 정감 표현의 방식은 매우 저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시에서 표현한 내용 또한 단지 개인의 출세에만 얽매어 있는 편협된 것이었다. 때문에 그는 孟郊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판한 것이었다.

왕부지는 또한 洪가업의 “조각한 활 들고 흰 말을 탄 三軍 병사들, 푸른 팔배 나무 청록의 죽두리 풀 무성한데 항구에 스치는 한 줄기 바람.”과 같은 시구는 세상을 근심하는 마음을 杜甫 보다 더욱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실 왕부지의 두보의 묘사 수법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두보의 꺾어진 묘사·단도직입적 표현·비방하는 논조를 여러 차례 비판하였다.

세상에서 즐거이를 묘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적이지 하지 않으려는 데에서 힘을 쓰지만, 오직 杜甫만은 逼真한 묘사에 힘을 쓴다.⁴⁰⁾

杜甫는 시대를 풍자하는 말이 입만 열면 보였지만, 李白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그 독법을 익숙하게 하여 그 전한 것을 따져보면, 자기가 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⁴¹⁾

38) 戴鴻森 點校, 《薑齋詩話箋注》, 11쪽. 《讀四書大全說》卷二: 以孟郊之文, 登一進士, 亦豈其不當得. 乃未得之時, 則云‘榜前下淚, 衆裏嫌身’, 既視爲幾幸不可得之事, 迨其既得. 而云‘春風得意馬蹄疾, 一日看遍長安花’, 其欣幸無已, 如自天隕者然. 此處所謂“乍笑而心迷”, “乍啼而魂喪”, 亦猶此意.

39) 同上, 蓋船山識其縈心一己科舉之得失, 情懷褊狹.

40) 《船山全書》一四·《唐詩評選》卷一, 913쪽. 世之爲寫情事語者苦於不肖, 唯杜苦於逼真(杜甫<哀王孫>評語)

단도직입적으로 비방만 해놓아 빛나는 것이 없으니 고발이 되고 저주가 되었을 뿐이다. 杜甫는 병폐 있는 필치로 “李鼎은 岐陽에서 죽었고, 來瑱은 鄆縣에서 사약을 받았네.” “고관 집에서는 향기로운 술과 살찐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건만, 길거리엔 얼어 죽은 시체가 나뒹구네.” 와 같은 시를 썼는데, 宋人들의 기만하고 저주하는 시의 원조가 되었으니 확실히 風雅가 한 차례 재앙을 만난 것이다.⁴²⁾

왕부지는 사회시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두보의 <自京赴奉先詠懷五百字>를 ‘敗筆’로 혹평하여 “宋人들의 기만하고 저주하는 시의 원조”, “風雅가 한 차례 재앙을 만난 것”이라 하였다. 왕부지가 두보를 이처럼 비판한 것은 두보의 당시 사회현실 비판과 풍자에 대한 찡찡한 묘사, 단도직입적인 표현, 비방하는 논조 때문이었다. 왕부지는 ‘比興’ 등으로 감정을 함축하여 완곡하게 표현하여 溫柔의 풍격을 갖게 함으로써 詩教작용을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왕부지는 흥가업의 시는 바로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를 大雅에서 노닐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겼다. 왕부지 시론에서 시의 표현 문제 특히 함축의 예술 수법은 흥가업과의 시문 교류를 통해서 강조되고 수련된 것이다.

3. 나오며

왕부지 시론은 그의 지기 熊秉·文之勇·洪業嘉의 계발과 영향을 통해 형성되었다. 熊秉은 왕부지의 ‘命意’에 관한 관점, ‘三蘇’에 대한 평가, ‘竟陵’에 대한 인식과 비판, 창작방향의 전변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41) 《船山全書》一四·《唐詩評選》卷一, 905쪽. 工部譏時語, 開口便見, 供奉不然, 習其讀而問其傳, 則未知己之有罪也. (李白<遠別離>評語)

42) 《船山全書》一四·《唐詩評選》卷二, 958쪽. 直刺而無照耀, 爲訟爲詛而已. 杜陵敗筆有“李瑱死岐陽, 來瑱賜自盡”, “朱門酒肉臭, 路有凍死骨”一種詩, 爲宋人謾罵之祖, 定是風雅一厄. (杜甫<後出塞>「獻凱日繼踵」評語). 왕부지가 杜甫 <後出塞>에 대한 품평에서 인용한 杜甫의 시구 “李瑱死岐陽, 來瑱賜自盡”은 杜甫의 <太子張舍人遺織成褥段>의 한 구절이다. 왕부지 평어의 ‘李瑱’은 ‘李鼎’으로 校訂되어야 한다.

文之勇은 곤궁과 궁핍 속에서도 고고와 탈속의 정취를 잃지 않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함으로써 시인 성정과 작품 풍격과의 관계를 계발시켰다. 왕부지가 역대 시가 품평에서 개인의 사욕과 기한을 표현하는 풍격을 배척한 것은 文之勇의 인격적 영향과 유관하다. 洪業嘉는 '평범과 천속'을 벗어나 白鶴이 창공에서 우는 정취"를 표현하고, 그것을 함축 등의 수법을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정취와 표현수법에 관한 문제를 계발시켰다. 왕부지가 시의 정취에서 심원과 고야 등을 강조한 것, 표현 수법에서 완곡과 함축 등의 예술수법을 강조한 것 등은 洪業嘉 작품의 정취 및 표현수법과 관련된다. 왕부지가 3인과 시문 교류를 통해 계발 받은 이러한 시론 명제들은 그의 《詩廣傳》·《薑齋詩話》·《古詩評選》·《唐詩評選》·《明詩評選》·《詩廣傳》 등에서 더욱 이론화, 체계화 되었다. 왕부지의 시론은 지기들과의 시문 교류를 통해 그 예술 정신과 정취를 사유하고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본고는 왕부지 시론이 知己들의 계발과 영향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탐구함으로써 한 개인의 인생·학문·예술의 형성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 배경이 조명되어야 하고, 특히 그것의 근원적 배경을 탐구해야하는 중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고는 熊震·文之勇·洪業嘉 3인에 대한 논술에서 熊震의 경우 《薑齋詩話》 등에서 자료가 충분하여 논증적 서술이 되었지만, 文之勇·洪業嘉의 경우 자료가 매우 적고 때로는 이름만 언급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연역적 서술이 되었다. 향후 왕부지의 《廣哀詩》를 검토하고 《船山全書》 등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본고를 통해 왕부지 시론은 명말청초의 시대환경에서 지기들과의 인생역정을 함께 하고 학문과 시가 교류 및 담론을 통해서 형성된 인문정신의 소산임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船山遺書全集》(全集二十二冊), 臺北: 自由出版社, 民國六十一年。
- 《船山全書》(全 十六冊), 湖南: 嶽麓書社出版社, 1988-1996年。
- 王夫之 著, 《王船山詩文集》(上·下),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74年。
- 王夫之 等 撰, 《清詩話》(上·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年。
- 張西堂 編, 《明王船山先生夫之年表》, 臺灣: 商務印書館, 民國 六十七年。
- 王啟 等, 《傳記, 年譜, 雜錄》, 《船山全書》第十六冊, 湖南: 嶽麓書社出版社, 1996年。
- 曾昭旭 著, 《王船山哲學》, 臺北: 遠景出版社, 民國72年。
- 王之春 撰, 汪茂和 點校, 《王夫之年譜》, 北京: 中華書局, 1989年。
- 夏劍欽 著, 《王夫之研究文集》, 河北: 河北教育出版社, 1995年。
- 張懷承 著, 《王夫之評傳》, 廣西: 廣西教育出版社, 1997年。
- 戴鴻森 點校, 《薑齋詩話箋注》, 臺北: 木鐸出版社, 民國 71年。
- 李錫鎮 撰, 《王船山詩學的理论基礎及理論中心》, 國立臺灣大學中國文學研究所博士論文, 民國69年。
- 조성천, 《王船山詩論研究》, 서울, 高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91年。

〈中文提要〉

本稿從交遊者所給予的啟發與影響入手, 對王夫之詩論形成的背景進行探討。在王夫之的交遊中, 熊秉、文之勇、洪業嘉三人頗值注意。三人常與王夫之一起唱和, 對其詩論的形成具有不少啟發和影響。熊秉對“命意”的觀點, 對“三蘇”詩文的評價, 對“竟陵派”的擺脫及批評、創作方向的轉變等對王夫之極富啟示作用。文之勇有關詩人性情與作品風格的關係的論述給了王夫之不少啟發。洪業嘉對詩文作品的情意及其表現技巧的分析給王夫之帶來影響。

王夫之將從這三人那裏受到啟發及影響, 形成了一系列詩論命題, 並通過《詩廣傳》、《薑齋詩話》、《古詩評選》、《唐詩評選》、《明詩評選》、《詩廣傳》等, 將這些命題具備理論化、系統化。

總之, 王夫之的詩論是在明末清初的時代環境之下, 通過與其知己一起交流、欣賞、談論, 並通過藝術思惟等過程而建立起來。

關鍵詞: 王夫之、詩論、熊秉、文之勇、洪業嘉、命意、三蘇、竟陵派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9. 30.	2012. 11. 5.	2012. 11. 16.	2012. 11. 21.	2012. 11. 30.